

입학사정관제 면접 대비 및 면접 후기 요약 1탄

목차

I. 서론

II. 제출서류에서 면접문제 만들기

III. 지원동기 및 장래 희망

IV. 면접 후기 일부

V. 소도 면접대비 프로그램 안내

I. 서론

제목을 입학사정관제 면접 대비 및 면접 후기 요약 1탄이라고 한 것은 입학사정관제 면접을 대비하거나 심층면접이 아닌 일반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이며 본인이 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더 올릴 생각으로 1탄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1탄에 올릴 글은 입학사정관제 면접 대비 요령의 요점과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중에서 쉽고도 어려운 지원동기와 장래희망 편을 집중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면접을 혹자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문제를 주고 그것을 푸는 형식이 아닙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여겨지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서류를 다 검토해야하고 질문 문항을 학생별로 준비해야하며 학생의 답변 속에서 더 찾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하기 때문에 결코 쉽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우 비슷한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면접도 무시할 수 없이 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펙을 과신하여 면접을 소홀히 하지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이 낮다고 기죽지 말고 면접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말하고 답하는 연습을 수능 후에 꼭 해보길 바랍니다.

유의할 것은 면접 후기는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소도에는 다량의 면접후기가 있으나 그 중 일부만 실은 이유는 면접 유형만 알고 대비는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이트나 입시카페에서도 면접후기가 있다면 학생의 답변내용보다 교수나 입학사정관들의 질문을 위주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이지 멋진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남과 같거나 비슷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학생이 답변하는 대로 면접은 꼬리를 물고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면접후기를 정답처럼 암기하거나 모범답안으로 생각하여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II. 제출서류에서 면접문제 만들기

1.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두어야 한다.

서울대 입학사정관 면접의 경우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한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안내서를 보면 4가지 영역을 종합평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업능력의 우수성

- 최고의 학업 성취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요
-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었나요
- 학업관련 활동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였나요

전공적성

- 지원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 입학 후 모집단위 전공분야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나요
-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나요

학업 외 활동

- 입학 후 구성원들에게 어떤 지적, 문화적 활기를 가져다 줄 것인가요
- 학생 구성원 다양화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인가요

개인적 특성

- 어떤 활동과 노력을 통해 주도적인 리더십을 보였나요
- 세계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전할 공동체 의식, 리더십, 배려심을 보이나요

이러한 4가지 영역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면접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은 다단계 평가 방식 중 3단계에 해당하는데 입학사정관제 안내서를 보면 [3단계 평가과정은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면접)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위촉입학사정관(교수)들은 1단계 평가서와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자의 서류를 전면적으로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지원자를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합니다.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을 반복합니다. 복수의 평가자는 각자 평가한 뒤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의견을 교환합니다. 면접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서류평가서를 바탕으로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과 학업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의 면접은 확인 면접이다. 확인면접은 질문지를 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출문제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험의 사실성, 다양성, 지속성, 그리고 자기주도성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종합평가 과정으로서의 면접을 실시한다.



입시전문가그룹

(주)소도커뮤니케이션즈

tel 02-6053-3131 fax 02-6053-323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재리제 빌딩1412호

서울대가 보는 서류는 5가지이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추가 증빙서류 이다. 이 대목에서 학생이 면접 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출한 서류 중에서 학생부의 주요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필자가 학생들을 수년간 지도하면서 겪은 바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대체로 잘 숙지하여 가는 반면 학생부의 경우는 숙지를 못한 경우를 종종 보며, 간혹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기록해 준 것도 있다. 이런 경우 학생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당황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기록된 것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논술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나? 라고 물어봤을 때 몇 학년 때 참가하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답변을 얼버무린다던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는데 과장되어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학생부에는 기억이 뚜렷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형식적인 활동이나 대회, 체험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답변이 막히지 않게 학생부를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수능이 끝나고 집중해서 학생부를 보면서 기록사항과 질문사항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래에 스스로 질문지를 만드는 보기를 참고하여 수능 후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만들어 활용해보면 좋을 듯하다.

(참고: 아래는 소도 스펙 분석 및 면접 질문 양식지이며 주요 요약 내용은 합격생의 자료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2탄에는 주요요약 내용에 따른 소도의 질문내용과 실제로 대학에서 면접한 내용을 실겠습니다.)

소도 스펙 분석 및 면접 질문 양식지			
항목구분	주요 요약 내용	질문 내용	
학 업 능 력	학업관련수상 교내) 교과우수상 4회 수학과학경시대회 4회 (생물부문-최우수. 우수/수학부문-최우수. 은상) 백일장 운문부 차하 교외)-전국모의고사 00지역 자연계2등 ·제00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수학 고등2학년부문 은상 - 성균관대학교총장 ·한국수학경시대회(KMC) 고등부 장려상 ·수학과학 경시대회(수학) 장려상 -00시교육감		
	어학능력	해당사항 없음	
	자격증 및 인증	한자능력급수3급 (사)한국어문화 정보소양인증(정보사회와 컴퓨터 4단위 이수) 필수단어급수인증제 2-1급(00시교육청)	
	진로지도 상 황	고1: 한의사 고2: 의사	

	교과성적	고1: 국어 2등급 (2학기-88/68.8) 과학 2등급 (1학기-95/74) 영어 2등급 (2학기-91/69.1) 고2: 국어(문학) 2등급 (1학기-86/67.1) (2학기-84/65) 과학(물리 I) 2등급 (2학기-93/68) 과학(생물 I) 2등급 (2학기-97/79.6) 고3:외국어(영어독해) 2등급 (1학기-92/65.1)	
학 업 능 력	모의고사	제출안함	
	학업관련활동	00시 학생교육원(지도자 과정) - 2박 3일 00청소년수련원(공동체 훈련 및 장애체험) - 1박 2일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강연참가) - 2일	
	국외표준 시험점수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고1) 미술감상법 - 11시간 안전교육 - 7시간 음악감상법 - 10시간 정보윤리교육 - 7시간	
교 과 외 활 동 분 야	주요봉사활동	<u>교내위주</u> 고1) 00청소년수련원(환경정화활동) - 6시간 고2) 00지방통계청(조사활동) - 2시간 00정보공업고등학교(봉사활동) - 2시간 00시교육청 봉사활동교육연구회 (봉사활동) - 4시간	
	학업 외 수상	교내) 모범학생표창(지도상, 선행상 2) 3회 표창장(봉사상) 1회 교외) 표창장 - 00시교원단체총연합회 표창장(00학생상) - 00시교육감	
	리더십	고1) 학급 반장 고2) 학급 반장 고3) 학급 부반장	
	특별활동	고1) 영화감상반 고2) 수리논술반	



		고3) 화학연구반	
	출결사항	고1)00수술(3일) 고2) 개근	
자 소 서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피가드의 일화 수학의 매력	
	경험 활동	kmo참가 성대경시	
	활동내역	반장,부반장 수리논술동아리 과학기술강연참가	
	독서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엔딩, 나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학 과 기 본 소 양	수리통계		

위의 예시는 2011학년 합격생의 학생부 내역을 요약한 것으로 소도에서 입학사정관 면접방법을 분석하여 학생마다 개별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다. 서울대 입학사정관 대비 학생들 가운데 내신이 낮은 학생, 스펙이 없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었으나 합격률이 매우 높았던 이유는 자신을 알고, 대학을 알고 학과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고 대비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이고 해당 대학에 꼭 합격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학생들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학생부 내역을 객관화해보고, 위에서 본대로 자신의 서류에서 위와 같은 목록을 만들어서 실적을 한쪽에 정리하고 실적과 관계된 질문을 오른쪽에 만들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적에 대한 동기, 과정, 영향을 중심으로 기본 질문을 만들면 된다.

입학사정관 면접 질문의 기본은 "왜"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로 마무리된다.

예를 들면

- kmo 가 있다면 왜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나? 어떻게 준비했었나?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 낮은 과목은 왜 낮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 지원학과와 관련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텀스같은 외국어 성적은 있는데 왜 했고, 실력은 어떤지
- 봉사나 리더십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학생부를 보고 기본 문제를 만들면 된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준비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독서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읽은 책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정도로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지원동기와 장래희망은 필수이니 확실히 답변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수능공부에 바쁘겠지만 지금이라도 진지한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원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기소개서 1번을 중심으로 이 질문은 자신을 매우 괴롭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질문은 모든 일반 면접에 나오는 중심 문제이다. 이 질문에서 자기소개서의 내용만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 말고 자기소개서에서 못 다한 얘기가 있다면 함께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면접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수능이 끝나고 보면서 종종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외워서 답변하는 정도로는 답변의 생동감을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자기가 쓴 자소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자소서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 면접에서 좀 더 그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할 고민을 하기 바란다.

대개의 경우 장래희망을 직업으로만 한정지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장래희망의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인생을 사는데 매사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해서 들어갈 대학이고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줄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데에 “그냥”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가 되묻고 싶다. 몇 년전 직업만족도에 대한 것이 가장 낮은 직업 군중에 의사가 있지 않았던가. 연봉과 사회적 명성만을 생각해서 지원하기 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 속에 진로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원하고자하는 학부에 대한 생각도 더 깊은 생각을 해서 면접장에 가길 바란다.

지원동기와 장래희망의 포인트를 말하자면



1. 차별화가 필요하다.

면접 시 90% 이상 지원동기를 물어본다.

이때, 자신의 경쟁자들은 대부분 희망 직업이 비슷할 것이다.

소도가 운영하는 입시 데이터마이닝 사이트인 수시의 신(www.soosin.co.kr)에 입력된,

2만 여건의 자소서를 분석해 보면, 학부나 학과가 비슷한 경우 희망 진로나 직업이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일대학 동일 학부의 경우 지원동기 편에서 자소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유사성이 한 문제 당 평균 25%정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자기소개서는 한정된 글자 수에서 자신의 지원동기를 말하다 보니, 진로 선정의 계기, 이후 되고 싶은 직업, 향후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가 학과별로 비슷한 경향성을 띄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자소서를 그대로 읽는 형태의 지원동기 외우기가 아니라 자소서를 기본으로 왜 그 진로와 해당 직업에 대해 고민하여 이 학부(학과)를 선택했는지 남과 다른 답변이 필요하다.

면접 전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고 싶다면, 수시의 신에서 자소서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축적된 데이터에서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전공에 대한 탐색을 다시 점검해라.

희망전공을 지원 시 **변경한** 학생들의 경우 특히 자소서부분에서 내용상 빈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징이 공부만 열심히 했지 자신이 공부할 것에 대한 탐색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전공분야의 서적을 읽고 대학교 들어가서 하는 공부를 미리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경험(수업, 독서, 체험활동, 가족, 선생님 등등) 속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선발자로부터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이 즉흥적이거나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대목이다.

3.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 공부자세를 견지하자.

이는 필자의 생각이다. 이 견해에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학생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첨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전공분야에 특정한 것을 거론하며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사학자를 희망하는 학생과 발해사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어찌 보면 후자가 더 자기전공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성립되려면 왜 사학의 분야 중에서도 발해사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전공에서 세부적이 것을 말한다는 것 자체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배움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나 지적 허영심을 지닌 학생으로 비취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으로서 사학 중에서 발해사 전문가가 굳이 되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동기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학을 전공하려는 이유를 말하고 그중에서도 발해사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대학 들어가면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는 유연한 자세가 좋지 않을까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4. 직업이나 학위보다는 학문과 배움에 초점을 두자

예를 들어 자연계 학생들을 보면 의사, 벤처사업가, IT회사 연구원, CEO등 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바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과 연계하여 자신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유학, 석박사 과정을 강조하여 학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연구하는 학자이다. 그들이 볼 때 아직 고등학생이고 대학에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을 취업과 성공의 기반으로 생각하거나 내용 없는 고학력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우수한 두뇌와 인성, 성실함을 바탕으로 학문을 배우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면서 공부하는 모습, 더 나아가 목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바란다.

예를 든다면 '농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이유가 국제곡물유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보다는 천적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작물재배를 연구하여 제초제나 살충제가 없는 먹거리를 대중화하고 싶다'라는 유형이 좀 더 배움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만약 직업이나 학위를 중점으로 자소서에서 쓴 학생이라면 관련 직업에 대한 파악과 함께 성취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학위 역시 석박사 과정으로 연구의 깊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계화 해보고, 학부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여 면접관에게 공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교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자신이 현재 정해둔 진로는 확정이 아니고 희망이며 배움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갖기 바란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은 지 보다, 지원하는 학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더 공부하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III. 면접후기 요약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 예시

(출처: 소도에서 면접 대비한 학생들이 실제 대학에서 면접한 사례 예시입니다. 질문 분위기와 유형만 파악하기위해

사례가운데 3편 만 기록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10월에 소도와 수신 홈페이지에서 면접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수리통계학부 합격자 면접 후기

나 : 안녕하십니까

교수 A : 앉게나. 자네는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수리과학부에 진학할건가 아니면 통계학과에 진학할건가?

나 : 수리과학부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교수 A : 왜지?



나 : 저는 수학 과목이 답은 하나지만 풀이 과정이 다양하다는 것에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도형 문제에서는, 제가 공간 도형이 약해서 처음에는 공간좌표를 도입해 풀어봤다가 공간기하적 성질을 이용해 풀어보기도 했고, 벡터에서 내적 같은 내용을 끌어와 풀어보면서 다양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위해 논술 문제도 몇 번 풀어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수학적 사실을 접하면서 나중에 대학에 가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수 B : 자네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 보았는가?

나 : (당황)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는 보았습니다.

교수 B : 무슨 내용인데?

나 : 천재 수학자의...고뇌?

교수 A : 미친 수학자잖아.

교수 B : 뭐 모르면 아는 체 할 필요 없고..

나 : 예.

교수 B : 그럼 대학 진학 후에 뭘 해보고 싶나?

나 : 학과 공부 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호남대학교 외국인 강사와 대화해 본적이 있었는데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와서 외국인과 회화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또 토플이나 텡스 등의 공인 영어 성적도 많이 올려보고 싶습니다.

교수 A : 자네 '어느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구만?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나?

나 : 고드프레이 해롤드 하디입니다.

교수 A : 머하는 사람인데?

나 : 순수수학자이며, 공동 연구로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1900년대 초기 수학자입니다.

교수 A : 그럼 이 책에 나오는 수학을 말해보게나

나 : 하디는 이 책에서 수학적 아이디어..

교수 A : (말을 끊으시면서) 아니 그건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수학을 말해보라니까

나 : 그러니까 하디는 수학적 아이디어에서 일반성과 깊이를 언급했습니다.

교수 A : 자네 그건 수학이 아니야 단지 관련된 내용일 뿐이라고

나 : 아 이 책은 한 수학자의 수학에 관련된 견해를 서술해 놓은 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수학적 정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딱히 수학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B : 그럼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주로 무엇에 시간을 많이 썼나?

나 : 우선 공부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사소한 대화도 했지만 저는 주로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문과 애들과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교수 A : 자네 또 '크로스'라는 책을 읽었구만? 무슨 내용인가?

나 : 이 책은 사실 한겨레 칼럼에서 연재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인데 한 가지 테마에 대해 자연과학자와 인문사회학자 한 분씩 자신의 테마에 대한 견해를 풀어 놓았던 책입니다.



교수 A : 진중권은 유명하잖아, 정재승은 누군지 알고 있는가?
 나 : 정재승은 뇌공학자로, 많은 과학 관련 서적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교수 A :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가?
 나 : 사실 두 분 모두 진보적 성향을 띠는 학자인데, 저는 정재승 뇌공학자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중권 미학자는 몇 가지 테마에 너무 편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부감이 들었지만 정재승은 그 나름대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노크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교수 B : 자네는 나중에 지역을 위해 일할 의도가 있는가?
 나 : 예. 궁극적 목표가 교육자(저는 교육자라고 했는데, 교수님들은 교수라고 들은 듯 싶어요)인데, 나중에 광주에 내려가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배워왔던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 A : 교수로는 그게 힘들텐데..차라리 사대를 가지
 나 : 제 나름대로 수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수리과학부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 : 그래 나가보게나
 나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 합격자 후기

저는 오후조 면접을 봤습니다. 대기번호 00번이었고 대기실과 면접실이 있었습니다.
 오후조는 면접후 바로바로 퇴실할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2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을 의자와 책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책상은 필요 없었음..)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후기를 보서는 올해 별로 달라진점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가야함.. 생각보다 본인인지 검사를 깐깐하게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살았는데 신분증을 안가지고 와서 미친듯이 당황했지만 현명하게 해결했지요..ㅋ

면접시간은 8분~10분!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두분 모두 인상이 좋으셨고 웃고계셨음..
 솔직히 무표정으로 계실것을 대비해 당황하지 않는 연습도 했는데 너무 편한 분위기여서 좀 당황..
 교수님 두분께서 번갈아 가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까진 자세히 기억이 안나요.. ππ 기억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교수님 1 : 바이오시스템 학과가 무슨일을 하는 곳인가? 또 어느곳에서 더 공부하고 싶나.
 나: 네, 바이오 시스템 공학은 생물산업에 공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인간생활에 유용한 생산품을 개발하는 응용공학으로서 어쩌구저쩌구..



저는 생물을 공부하면서 인체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생체조직공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1 : 음 많이 알고 있네요.

나 : 네 바이오 시스템 학과에 지원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교수님 2 : 우리가 고등학교때 공부하는걸 응용해서 더 많은걸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응용하면 좋겠다. 이런거 생각해 본적 있나?

나 : (완전당황.) 아. 제가 과학을 좋아했는데 특히 생물을 많이 좋아했는데 생물하고 생물2를 공부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쩌구저쩌구
인공피부나 이런곳에 응용하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어쩌구 저쩌구 말하다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 없다고 대답했음..)

교수님 1 :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란 가장 못했던(?)일은?

나 : 가장 잘했던건 반장생활이었는데 살라살라, 못했던건 3학년 올라와서 부담감때문에 공부가 약간 흔들렸었는데 그때 좀더 현명하게 해결했다면 3학년이 좀더차분히 길게 보낼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1 : 3학년이 짧았나?

나 : 네. 어쩌구 저쩌구.

교수님 1 :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갈텐데 허허허허허허허허 (하고 교수님2와 살짝 웃으심.)

교수님 2 : 어떤 상황에서 토론을 하다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네. 어떻게 하겠는가?

나 : 그 대립의 기준을 따라서 도리에 맞는걸 찾아서 잘 해결.. 어쩌구 저쩌구..

교수님 2 : 그럼 남하고 대립할때 얘기를 주장하는 편인가 들어주는 편인가?

나 : 네 저는 친구들을 넓게 사귀려고 노력하고 (이건 상관없는 말이었음..ㅠㅠ) 먼저 얘기를 들어주는 편입니다. 먼저 들어야 제가 그에 맞는 반박을 할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친구의 의견이 맞다면 수긍할 부분은 수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2 :(끄덕끄덕)

교수님 1 : 언제부터 바이오 시스템학과에 관심을 가졌나?

나 :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러듯이 3학년 들어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과학중에서 생물을 가장 좋아했고 물리나 화학도 좋아했고 학교에서 성적도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것을 응용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친환경적인것에 관심이 많았고 할아버지나 친척분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그때 8분 지났다고 조교분이 노크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교수님1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교수님1 : 꽃동네에서 봉사를 했다고? 뭘 느꼈나?



임시전문가그룹

(주)소도 커뮤니케이션즈

tel 02-6053-3131 fax 02-6053-323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재리제 빌딩1412호

나 : 청소하고 목욕해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을 했고,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찌구 저찌구... 그분들이 약간 간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안타까웠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1 : 더 듣고 싶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허허.

나 : 네 감사합니다. 꾸벅 하고 나왔어요 ㅋ 교수님들이 너무 친절하셨고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 있었는데 제대로 대답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았고 소도에서 연습했던거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준비했던 질문들도 꽤 나와서 그 부분은 겁나 유창하게 했어요.ㅋ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합격하면 좋겠어요 ㅠ_ㅠ!!

연세대 경제학과 지원자 합격 후기

이번에 연대 진리자유 경제학과 지원했던 00고 000 입니다.

우선 면접 시험은 너무너무 잘봤구요^^

대략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들어가자마자

나: 안녕하세요

면접관1(남자): 아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표정은 되게 밝은 분위기셨어요 두분다.

면접관1: 그냥 뭐 어려운거 물어보는거 아니니까 아는 대로 사실대로 편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시험

질문한 내용

1. 밖에 출조?
2. 본격적 질문: 학생이 지망하는 과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 노력을 들였는지, 심화 탐구한 내용은 있는지 말해주세요.
3. 학교에서 임원활동을 많이 했네요, 임원활동할 때 급우들을 중재하는 방법이나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4. 교내 혹은 교외에서 팀이나 단체를 이루어 활동했던 경험과 거기에서 학생이 느낀 것은 무엇 인가요?
5. 왜 우리 대학과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 말해 보세요.
6. 경제학과 경영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전에서 올라온 친구는 두개정도,

저랑 같이 간 같은 학교 이과 친구도 두개정도 물어봤다는데 저는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끝에 여자 면접관께서

"그래요 말도 잘하고 좋네요, 괜찮아요"

이 말에 일단 안심은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니깐요



입시전문가그룹

(주)소도 커뮤니케이션즈

tel 02-6053-3131 fax 02-6053-323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재리제 빌딩1412호

IV. 소도 면접 대비 프로그램 (자세한 사항은 www.sodoedu.com)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 선착순 사전 예약 접수 (9월 9일 부터 신청 진행 중)

작년 지역균형 평균 경쟁률 2:1 (1단계 합격자)

2012 지역균형 평균 경쟁률 3.45:1

마지막 당락은 제출한 서류를 통한 면접에 있습니다.

소도의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합격자 실적!!

2011학년 지역균형 대비생 28명 대비자 중 25명 합격!

(의예, 생명과학, 화생공, 수통, 전컴, 공학, 과학교육, 농생명공학, 바시조, 간호, 사과, 경영, 인문1, 인문2, 소비자아동 등)

2011학년 기회균형 대비생 6명 전원 합격! (경영, 사과, 수통, 자전, 인문1)

(위 지균 합격자는 소수로만 진행되는 소도 면접의 특성상 작년에는 지균 면접자를 28명만 정원으로 추가인원을 받지 않고 준비한 합격자들로 소도에 방문하시면 2011 서울대 합격자들의 면접 동영상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면접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셔서 미리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 예약 안내

1. 면접방법: 1:1 대면 면접, 면접관 2인과 학생1인 실전 면접, 실전 동영상 시뮬레이션
면접내용: 서울대 지균 면접방식에 맞춘 학생개인별 입학사정관 면접
(학생부, 자소서,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개인별 인성, 학업적성 면접 진행)
2. 제출물: 학생부, 자소서, 기타 증빙서류 사본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첨부파일로 제출)
- 우편제출 : 우편번호(135-712)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89-5 상제리제센타 1412호
- 이메일 제출 : sodo3232@hanmail.net
3. 기간 : 11월12일- 12월2일 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학생이 원하는 일정으로 운영
4. 면접 시간 및 회차 : 회차 당 2시간 30분 / 최대 3회 까지만 신청 가능
5. 금액 및 기타 문의: 홈페이지 www.sodoedu.com 참조 바랍니다. 02-6053-3131
6. 오전10시~오후8시까지 상담 접수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고려대 추천전형 면접 예약 신청 가능 일정 및 시간 안내
(아래의 일정 중 최대 3회만 선택 가능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 선착순 예약자가 원하는 일정을 골라서 최대 3회까지만 신청 가능 하며, 마감이 되면 더 이상 추가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다.</p> <p>** 한 회 차 당 최대 인원은 6명이며, 입학사정관 면접과 동일하게 개인 면접 시 타 학생은 대기시간 면접 자료를 숙지합니다.</p> <p>** 면접은 1:1과 면접관2인과 학생1인 방식인 多:1로만 진행합니다.</p> <p>** 반드시 전화 예약 후 일정을 확인하신 후 결제해야 합니다. (02.6053.3131)</p>						
11월 13일(일) 3차) 오후 2시-4시30분 4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15일(화) 5차) 오후 2시-4시30분 6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16일(수) 7차) 오후 2시-4시30분 8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17일(목) 9차) 오후 2시-4시30분 10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18일(금) 11차) 오후 2시-4시30분 12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19일(토) 13차) 오후 2시-4시30분 14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20일(일) 15차) 오전10시-12시30분 16차) 오후 2시-4시30분 17차) 오후6시-8시30분		11월 22일(화) 18차) 오후2시-4시30분 19차) 오후6시-8시30분	11월 23일(수) 20차) 오후2시-4시30분 21차) 오후6시-8시30분	11월 24일(목) 22차) 오후2시-4시30분 23차) 오후6시-8시30분	11월 25일(금) 24차) 오후 2시-4시30분 25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26일(토) 26차) 오전10시-12시30분 27차) 오후 2시-4시30분 28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27일(일) 29차) 오전10시-12시30분 30차) 오후 2시-4시30분 31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29일(화) 32차) 오후 2시-4시30분 33차) 오후6시- 8시30분	11월 30일(수) 34차) 오후 2시-4시30분 35차) 오후6시- 8시30분	12월 1일(목) 36차) 오후 2시-4시30분 37차) 오후6시- 8시30분	12월 2일(금) 38차) 오후 2시-4시30분 39차) 오후6시- 8시30분	

[고려대 추천전형: 면접대비 기간 10월 1일- 10월 14일이며 서울대 예약안내를 참고바랍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 선착순 예약자가 원하는 일정을 골라서 최대 3회까지만 신청 가능 하며, 마감이 되면 더 이상 추가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다.</p> <p>** 한 회차 당 최대 인원은 6명이며, 입학사정관 면접과 동일하게 개인 면접 시 타 학생은 대기시간동안 면접 자료를 숙지합니다.</p> <p>** 면접은 1:1과 면접관2인과 학생1인 방식인 多:1로만 진행합니다.</p> <p>**반드시 전화 예약 후 일정을 확인하신 후 결제해야 합니다. (02.6053.3131)</p>						
10월 2일(일) 7차) 오후2시-4시 30분 8차) 오후6시-8시 30분		10월 4일 (화) 9차) 오후6시-8 시30분	10월 5일 (수) 10차) 오후6시-8 시30분		10월 7일 (금) 12차) 오후6시-8 시30분	10월 8일(토) 13차) 오전10시-12시30분 14차) 오후2시-4시30분 15차) 오후6시-8시30분

10월 9일(일) 16차) 오전10시-12 시30분 17차) 오후 2시-4시 30분 18차) 오후6시- 8시 30분		10월 11일 (화) 19차) 오후6시- 8 시30분	10월 12일 (수) 20차) 오후6시- 8 시30분	10월 13일 (목) 21차) 오후6시- 8 시30분	10월 14일 (금) 22차) 오후6시- 8 시30분	
---	--	---	---	---	---	--

***** 환불 조건 *****

(신청 전 아래의 환불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제이며 학생들의 귀중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개인별 면접자료를 사전에 제작하기 때문에 신청 시 내용 확인하기 바랍니다.)

- 면접예약일 1주일 전: 전액 환불
- 면접 예약일 6-4일전: 80% 환불
- 면접예약일 3일-2일전: 50% 환불
- 면접 예약일 1일전: 30% 환불
- 면접당일: 환불 없음